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한 생명을 소중히, 한 영혼을 귀중히
- ◎ **전도주일:** 오는 8월 24일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씁시다.
- ◎ **성경공부:** 후반기 기초 성경공부 개강합니다. 개강일시: 8월 8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5분 장소: 계수실 담당: 이태한 목사
- ◎ **기도회:** 화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5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5분 장소: 계수실 담당: 이성철 목사
- ◎ **봉사활동:** 9월 중 학생들 방학 때 공동체별, 선교별로 봉사활동(Outreach,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떠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예고:** 8월 셋째 주일(8월 17일)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 ◎ **모임:**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복된 은혜와 사귀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 **개업:** 박병민장로(이기증권사) Hiroba Sushi 전화:478-3613 주소:37 Beach Rd Mairangi Bay
- ◎ **성경완독:** 전인우 집사.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 이니이다(시편 119:35).

해외 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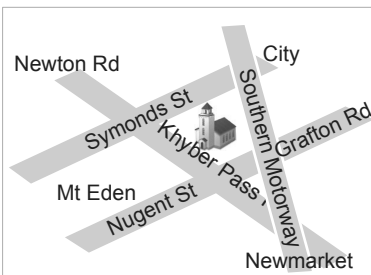
국내 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온라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8월 3일 주일

16권 31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不積小流 無以成江海(부적소류 무이성강해)
 (조금씩이라도 쌓이는 것이 없으면 강이나 바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

제가 不惑이라는 세월을 사는 몇 년전 하나님은 갑자기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知天命의 세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십년을 멋지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나의 멋진 동반자인 하나님께 SOS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고 지난 저의 不惑의 시절을 회상해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너무나 저 자신을 위해, 오만한 저 자신의 틀에 저를 무조건 합리화시키려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만한 생활 속에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기도했다는 사실과 그러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변화가는 저의 모습도 인정하고 있음을 함께 알았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옆에 계신다고 속삭이시며 또 때때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습니다.

知天命의 시작인 올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不積小流 無以成江海 라는 글귀가 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글귀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글귀를 되새기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의 고집병, 성질급한 저를 나타내면서, 그 즉시 정답을 알려고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난 연말(2013년 11월 초) 제가 감히 하나님과 타협 아닌 강제 협상을 맺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을 (영어성경 완독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성경 완독이 It's impossible, forever하다고, 10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완독하기는 할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집사님을 통해 영어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우리 멋진 하나님이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완독하려면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사히 (2014년 7월 31일) 완독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NZ에서 두 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잡사에서 집사로 나가길 하나님께 감히 또 다른 강제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혹,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않을까. 야!! 이 지독한 놈! 또 강제협상이야!! 웃고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신 이태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전인우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찬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미가 4:22
찬양대
다함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63. 시편 145편
사도신경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현석호 장로
누가복음 5:1-7
나무십자가 찬양대
실패도 은혜입니다/이태한목사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태만 집사
요나서 4:7-9
어찌 옳으나/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박병민 청년부장

☉ 8월 교회악기

월샷기도회: 8월 1일(금)
전도주일: 8월 24일(주일)
선교회주관 수요예배: 8월 27일(수)

☉ 8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석목/김윤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강동호 집사
다음 주일: 박제용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8월 13일 수요: 민광호 집사
8월 13일 애찬: 김광영 집사
8월 17일 주일: 고성일 장로
8월 10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에 힘을 쏟는 성도들 되도록.
2.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능력을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비자와 비즈니스,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충만함이 있도록.

8월 새벽기도회 본문

8일: 마가복음 12:35-44 중심을 보시는 분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15일: 마가복음 14:32-42 기도만큼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22일: 마가복음 15:33-41 죽음으로써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
29일: 디도서 2:9-15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 심재우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살롬,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심재우 선교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그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사역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은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롬 기숙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깨달은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삶으로 풍성하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안식년에는 진작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하면서 배우고 그 진리가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부 자문위원이시고, 태국 선교를 잘아시는 양병화 선교사님께서 저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NIBCM 한국선교본부 선교사로 한뼘을 사역하면서 그 기간동안 신학공부를 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고서는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서 고민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선교부에 필요한 부분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어 언어라든지, 한국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선교본부의 사역 등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9월에 한국으로 귀임하여 12월까지 첫뼘 사역을 마치고, 2014년부터는 새롭게 4년을 한뼘으로 하여 NIBCM 선교회 본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본부 선교사로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학공부를 잘 준비하여 이곳에서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콕에서 심재우, 김신애, 예준, 요엘 가정 올림